

# 2009년에도 바라시는 모든일 잘 되길 바랍니다

## ‘긍정’의 힘으로 돌아야 하는 세상을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면 정말 힘들어진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는 인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힘들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금방 좋아질거야” 하면서 살고 싶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좋은 생각 좋은 말로 한해를 따뜻하게 살자.

경제 위기도, 종교관향도, 종교 내부의 갈등도 모두 부정적인 견해에서 비롯된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내세우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세상의 혼란이 오는 것이다. 새 해에는 나를 긍정하고 너를 긍정하는 마음으로 나와 너가 일체임을 알아가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자.

임연태 부국장



##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염원

새해에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영은·영웅이가 더욱 밝고 착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현대불교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어 독자들에게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행·신행 전문지에서 건전하고 균형잡힌 비판 기사와 불교를 외호하는 기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계는 서로 화합해서 인재양성과 포교에 심혈을 쏟았으면 합니다. 더이상 분규와 상호 비방, 갈등 없이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존경받는 종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지역·세대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평화가 정착되길 염원합니다.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면서 진리를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이를 공경하면서 쉽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김성우 취재부장

##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나의 사진을

세계적인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나의 사진이 실린다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미국 국립지리학회가 1888년 창간한 잡지로, 처음에는 지리에 관계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발간되었으나 현재는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지로 발전했다. 발행부수는 약 10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3000만 이상의 인구가 읽고 있으며 한국판도 발행되고 있다.

특히 컬러사진을 풍부하게 실는 것이 특징이어서 사진가들에게는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다. 2009년, 한국의 생활풍경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실고 싶다.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박재완 기자의 생활풍경’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도 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를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불법(佛法)의 가치 또한 널리 알리고 싶다.

박재완 사진부 차장

## “일과 재미, 둘 다 잡는 한해를”

대외적으로 자주 위축돼가는 것만 같은 불교 교세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불교도 위기의 백적간두에 선 듯하다. 위축된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불자들이, 사부대중이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초심을 많이 잃었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던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 수행한답시고 아만 이상만 높아서야 부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일 뿐이다.

대내적으로 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발전된 회사를 위해 내 마음도 다지고 내 능력도 키우는 한해이고 싶다. 나이를 먹는 것만큼이나 회사에서 연차가 많아지면 그 역할이 권한보단 의무가 커진다. 의무라 무겁게 생각하기 보다 발전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할 것이다. 평생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삶을, 세상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즐기는 한해를 만들어갈 것이다. 세상이 힘들다 해도 부처님법 안에서 재밌게 일 하는 사람만큼 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일과 재미 둘 다 잡아버릴테다!

김지연 편집 차장

## “구독중단 만은 말아주세요”

얼마 전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사를 보고 한 수행단체를 찾았다는 독자 분은 기사에 적힌 것과 달랐으며 언성을 높였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은 독자 분의 노여움부터 달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지만 참 쉽지 않다. 기사 쓰는 것보다 빠른 독자 달래기가 더 어렵다. 내 마음인데, 남의 마음인데 ‘마음’ 열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리라.

지난 해, 우리는 미친 소가 휩쓴 광우(狂牛)의 한해를 보냈다. 이제는 남 아닌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먹우(覓牛)의 한해를 보낼 때가 아닐까? 2009년은 모두가 ‘마음의 소’를 찾아 정진하는 심우(尋牛)의 해가 되길 바란다.

기자는 전화주신 독자의 채찍은 물론, 묵묵히 ‘현대불교신문’을 지켜보는 분들의 애정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기자가 올해도 독심을 갖고 정진하는 우심(牛心)과 우력(牛力)으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위한 우행(牛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헛김이라도 구독중단 하지 않는 독자 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 포교사 같은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불교는 나에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 같다. 불교는 내가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했고, 마음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불교를 바르게 알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편집기자가 된 것에 매우 감사한다.

2008년엔 불교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어떤 종교든 편애가 없길 바라며 좋은 일, 바른 일들을 정확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포교사가 된 마음으로 편집할 것이다.

2009년에도 우리 독자님들과 불자들이 건강하고 힘찬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석정희 편집기자

## 제1회 불교국제영화제 발족!

유명인과 일반인,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불교문화 콘텐츠 시장이 불교국제영화제에 있다. 불교국제영화제가 한국에서 개최되길 기원한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영화시장을 순방, 불교영화를 발굴하는 ‘프로그램머(programmer)’로 활동하고 싶다. 대형 극장상영과 함께 천년 고찰에 야외 스크린을 설치해 별빛 조명삼아 부처님 말씀을 감상한다면 연동축제와 또 다른 묘미를 민각할 것이다. 물론 영화제 풍경이 담긴 데일리뉴스는 현대불교신문이 맡는다.

고승의 흔적을 좇은 역사물, 수행자의 고행을 조명한 인물 다큐멘터리 섹션,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사랑을 다룬 드라마 장르도 있어야 한다.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종교를 주제로 한 영화도 비교 상영한다. 단순 불거리에만 그치지 않고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배우, 감독과의 대화를 마련하고 불교영화를 일상에 응용한 제품들도 전시 판매한다.

기연숙 기자

## 장자로, 기자로, 불자로 3UP! 정진!

2009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가정의 장자로서, 한 신문사의 기자로서, 한 사람의 불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로서 힘든 경제난 속에도 구독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행복을 전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 날카로운 비판 속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행복을 위한 비판 기사를 쓰고 싶다.

불자로서 불교계 이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자들이 행복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궁구하고, 또 공부하겠다. 불자의 눈과 귀로서 나부터 내 역할에 충실해 2009년에는 불법이 융성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행복’을 주는 신문, 현대불교신문 파이팅!

노덕현 기자

##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다. 뜨겁다. 오늘이 마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 난 잡지의 안일을 위해 눈감아버렸다. 지금 난 죽을 지경이다. 그동안 내 삶은 이렇게 엉망무엇하는 하루하루였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이는 서른 즈음이 됐다. 언제까지 살 것인가? 2009년 새해는 현대불교 독자들의 이름을 걸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네’ 라는 유언을 남길 것을 약속하며.

이상언 기자

## 어려워도 책 잡은 손 놓지 않기를

경제가 어려워 책을 사서 읽어볼 여유가 없을지라도 새해에는 내 자신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불교 도서를 빌려서 보든 구입해서 보든 많이 읽고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무늬만 불교신자가 아닌 적극적인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불교가 기복신앙이 아닌 얼마나 세련되고 과학적인 종교인지 많은 이들이 현대불교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 기사를 내기 위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라이 라마 같이 해외의 정신적 지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갖고, 경력이 쌓이면 해외의 불교서적들을 번역해 출판하고 싶다.

이나은 기자

## 불교계 힘 얻는 2009년 되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니는 선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경전법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요. 혹시 취재 오실 수 있으세요?”

본지 독자라는 한 불자에게 취재요청 전화를 받았다. 독자는 “개신교의 공격적인 종교 표현으로 불교가 위축된 요즘, 평일 오전 시작하는 경전공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의 지적처럼 2008년은 ‘불교계 수난의 해’였다. 이는 특정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편향적 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자 스스로 ‘행동’하지 않은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문서포교에 앞장서왔다. 작금의 위축된 불교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현대불교신문 기자인 나는 발로 뛰어 만든 생활화·세계화 독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리라 다짐한다.

독자여러분! 2009년도 현대불교신문의 발로 뛰기 기사와 함께 힘찬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진성 기자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대승정 덕인당 석성제 예하  
종정 무학당 석송천 예하

- |                                 |                            |
|---------------------------------|----------------------------|
| 승정원장 법선당 석무중 / 부원장 석무상          | 원로원장 월서당 석성목 / 부원장 석법진     |
| 중앙총회회장 법화당 석일타                  | 중앙총회 부의장 학성당 석정인 / 학철당 석정암 |
| 중앙총회 사무총장 석현우 법사                |                            |
| 총무원장 법선당 석영봉                    |                            |
| 사정원장 법천당 석지산                    |                            |
| 포교원장 학산당 석정대 / 포교원부원장 석정산       |                            |
| 교육원장 법성당 석지덕                    |                            |
| 문화원장 일현당 석익일 / 문화원부원장 석보성       |                            |
| 고시원장 법일당 석일각                    |                            |
| 수선원장 선재당 석도공                    |                            |
| 복지원장 법영당 석정도 법사                 |                            |
| 비구니원장 효경당 석지명 / 비구니부원장 석정명, 석정연 |                            |
| 종정예하 예경실장 학림당 석정목               |                            |
| 총무원장 사서실장 겸 총무부장 아함당 석정행        |                            |

- |                 |               |               |
|-----------------|---------------|---------------|
| 서울교구원장 서원암 반야지  | 부산교구원장 반야사 일도 | 대구교구원장 범룡사 정산 |
| 정산대전교구원장 일광사 정인 | 울산교구원장 도성암 덕일 | 강원교구원장 지명사 지명 |
| 경기교구원장 흥림암 흥련   | 충북교구원장 관음사 정명 | 충남교구원장 구암사 무중 |
| 무주전북교구원장 삼불사 정안 | 경북교구원장 정암사 정암 | 경남교구원장 금강암 정행 |

### 입증 안내

귀의 삼보하유고, 본 종단은 정부로부터 서기 2007년 11월 29일자로 종교 사단법인 인가를 정식으로 받은 종단으로써, 법인등록 고유번호는 (314-82-12041)이며, 종교법인으로 활동하는데 전혀 허자가 없는 종단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국에 승려, 법사, 창건주, 재가불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 전법하며 본 종 단행사에 적극 협조 할 수 있는 애중심(愛宗心)을 갖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 1. 입증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참신한 승려, 법사, 포교사, 창건주, 불문에 뜻이 있는 분.
- 불교대학 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는 본 종에 특별대우로 입증함.

### 2. 구비서류

- 법복 (가사 + 장삼) 착용한 사진 ..... 3매 (반명함판)
- 주민등록등본 .....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 총무원에 비치한 입증원서 ..... 1통

### 3. 교부서류

- 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 사찰 등록증, 승려증, 법사증, 본 종 사단법인 등록허가증, 년말 기부증서 (승려로서 출가를 원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심사와 총무원장의 인가에 의해서 출가가 가능합니다)